

제2회 송건호언론상 자료집

The 2nd Song Kun-ho Prize

시상식

일시: 2003년 12월 5일 (금)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At the Seoul Press Center 19th Floor, 6:30 p.m. on
Dec 5, 2003**

**Hosted and arranged by Cheongam Press
Foundation & Hankyoreh Newspaper Company**

제2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 위르겐 힌츠페터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진실 보도를 추구했던 위르겐 힌츠페터 (Jürgen Hinzpeter) 님을 제2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결정합니다. 힌츠페터님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후 이를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937년 독일에서 태어나 의학을 전공했던 힌츠페터님은 독일의 공영방송인 ARD-NDR 에서 근무하면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지역을 담당했으며, 일본특파원 시절에는 70, 80년대 한국의 정치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힌츠페터님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로 들어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촬영했으며, 이 비극적인 사건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힌츠페터님이 촬영한 영상 자료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하여 국민의 양심을 깨웠고 소중한 불씨가 되어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겼습니다. 이제 그 자료들은 현대사의 귀중한 기록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불의에 맞서 진실을 알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현장을 지켰던 힌츠페터님의 치열한 기자정신이 고 송건호 선생께서 남기신 뜻과 맞다고 판단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상의 수여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상이 고난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을 일깨우는 동시에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세계 언론인들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2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위 원	이문영
위 원	김태진
위 원	성유보
위 원	방정배

수상자 소개 - 위르겐 힌츠페터

- 1937년 7월 6일 독일 출생.
- 고등학교 졸업후 독일 키엘에 있는 크리스찬 알브레히츠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함.
- 독일 공영방송 TV 네트워크인 ARD-NDR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며 캄보디아와 베트남 지역을 담당하였고 사이공시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함.
- 극동아시아 지역을 위한 스튜디오가 일본에 설립된 후 일본에 파견되었고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70~80년대 한국의 상황을 기록함.
- 1980년 5월 광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그 과정을 촬영하였고 이를 세계에 알렸음.
- 1986년 11월 28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취재 중 큰 부상을 입었음.
- 1995년 은퇴하여 지금은 고향인 라체부르크시에서 거주하고 있음.

축 사 – 강만길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역사의 진리를 되새기며

오늘 청암 송건호 선생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참된 지식인의 자취는 푸르름을 더해가고 남기신 가르침은 큰 바윗돌로 우뚝 섰습니다. 선생이 남기신 글 중에 '역사의 길이란 형극과 수난의 길이다. 사회의 온갖 세속적 가치로부터 소외되는 길이다. 그러나 나는 역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후세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 스스로에게 엄격하셨던 선생의 모습을 떠올리면 참으로 역사정신에 투철하셨던 삶을 사셨다고 감탄하곤 합니다.

선생은 언론인이자 한국현대사 연구에 매진하신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미개척지였던 해방 전후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시고 자료 수집과 객관적인 시대 해석에 몰두하신 선구자이셨습니다. 선생과 오늘 수상자인 위르겐 힌츠페터님은 참다운 언론인이란 시대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역사가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힌츠페터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록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생생한 장면들이 정치적 폭압 아래서 눈과 귀가 먼 채로 살았던 한국인에게 그날의 비극을 알렸고, 그 기록이 불러 일으킨 슬픔과 분노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이 때로는 외면 받고 왜곡될 수 있지만 영원히 묻힐 수는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국 언론이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 하셨던 힌츠페터님께 우리 모두는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23년이란 세월이 흘러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뜻깊은 <송건호언론상>을 드리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힌츠페터님께서 1986년 한국에서 취재 도중 크게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상의 후유증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나셔서 집필 중인 저서를 완성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로서 2회를 맞는 <송건호언론상>이 한국 언론계의 권위 있는 상으로 그리고 세계 언론인들에게는 언론자유 수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

게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도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시상식은 청암 선생님의 정신을 잇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약속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약속의 의미는 결코 퇴색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과 공동으로 이 상을 주최한 한겨레신문사 고희범 대표이사와 청암 선생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 사 - 고희범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청암 선생님을 그리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리운 분이 있습니다. 어렵고 막막할수록 삶의 지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내외빈 여러분들께서도 청암 송건호 선생님을 그런 분으로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저희 회사 현관에 서있는 청암 선생님의 흉상을 볼 때마다 언론의 정도를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되새기게 됩니다.

언론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줄어든 오늘의 현실에 비춰볼 때 암울한 시기에 가시밭 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 민주언론의 불씨를 지피신 청암 선생님의 뜻과 용기가 더욱 높아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불의에 맞선 용기에 대한 존경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고결한 향기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청빈한 삶을 사시면서 지조를 지켰던 청암 선생님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위르겐 힌츠페터님을 <제2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택한 것은 송건호 선생님의 치열한 삶과 '기자정신'에 비춰볼 때 아주 적합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힌츠페터님은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냉철하게 기록하여 세계로 전했고, 현대사의 격동기를 함께 겪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보여준 치열한 기자 정신은 청암 선생님의 삶의 자세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힌츠페터님, 다시 한번 <송건호언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강만길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천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송건호 언론상> 시상식을 지켜보시면서 감격이 남다르실 청암 선생
님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 사 - 조성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제2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시는 위르겐 힌츠페터씨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암 송건호선생님의 참언론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한국의 언론상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송건호선생님은 진실 추구하고 전달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셨으며 참언론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신 올곧은 언론인이셨습니다. 한 예로 1974년 10월24일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나선 동아일보기자들이 당시 보도금지되었던 박정희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 사례를 동아일보에 보도하도록 편집간부들에게 요청했을 때 당시 편집국장이셨던 선생님께서는 주저없이 받아들여 진실보도에 앞장서셨습니다. 새로워진 신문지면으로 인한 광고 탄압이 5개월 지속된 뒤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동아일보사가 1975년 3월17일 자유언론운동가담자 160여명을 해고시키기 이틀전 선생님께서는 참언론의 깃발을 내린 신문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고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후 경제적 핍박속에서 자녀들의 학업을 중단하고 정보기관의 방해로 취업이 안될 정도로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선생님께서는 학문연구에 정진하시어 "언론인은 사회과학도가 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대로 한국현대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주옥같은 많은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한겨레신문>과 <말>지 등 진보적 언론의 창간 발행에 앞장서셨던 것도 선생님의 참언론정신이 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인으로서도 진실되고 강직한 선생님의 삶은 우리 민족의 사표이셨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힌츠페터씨의 치열한 기자정신은 한평생 오로지 진실추구에 몰두해오신 선생님의 참언론정신에 가장 잘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5.18 당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두 차례나 광주에 몰래 들어가 그 참혹한 현장을 생생하게 화면에 담아 전세계에 알린 그 용기와 투지, 그리고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한 장을 영상기록으로 남겨준 그 공로 등 한국인의 한사람으로서 무어라 치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슬퍼렇던 계엄하의 5.18당시 서울에서는 모든 언론이 잠잠한 가운데 광주에서 흘러나오는 유인물을 통해 겨우 광주사태의 진상을 짐작했을 뿐이었는데 그 이듬해 제가 미국체제 중 첩보작전하듯이 수소문하여 워싱턴의 교포가정에서 광주사태의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비디오가 바로 오늘 수상하신 힌츠페터씨의 작품일거라는 생각에 반갑

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진실 전달자로서 역사의 기록자로서 언론인의 역할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힌츠페터 씨의 업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암언론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23년전에 한국현대사를 거꾸로 가게 만든 역사적인 대사건의 현장을 영상에 담는 엄청난 일을 해낸 주인공, 그러나 올해 한국방송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푸른 눈의 언론인에게 이 상을 주게 되어 송건호언론상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힌츠페터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청암언론재단과 한겨레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상 소감 - 위르겐 힌츠페터

저를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하신 강만길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님, 한겨레신문사 고희범 사장님,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친구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일일이 다 거명하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대중매체에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이나 지금 저처럼 청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시간이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론종사자는 항상 시간에 쫓기지만, 제가 은퇴하고 난 요즘은, 특히 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가슴이 뭉클한 지금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이 시상식을 준비하시고 제가 가슴 벅찬 이 순간을 맞도록 해 주신 청암언론문화재단과 한겨레신문사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한겨레신문사 초대 사장이시던 송건호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도록 저를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 경력에 있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 언론 활동의 공적을 인정하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언론자유와 신장에 공헌하신 고 송건호 선생님을 기념하는 상의 제2회 수상자, 외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수상자가 되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큰 명예로 느껴집니다. 청암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진정한 저널리즘을 추구한 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은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아주 기쁘고 행복했으며 동시에 좋고 나빴던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에 열렸던 <세계인의 눈에 비친 광주(공저)>의 출판회가 열렸던 장소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께 수상 소감을 밝히게 되어 더 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 책은 일곱 명의 외국 언론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중 두 명은 독일인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회고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1980년 5월의 광주시민항쟁을 되돌아 볼 때 그 참혹했던 날들을 제가 기록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에는, 함부르크에 있는 우리 방송국 뉴스에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방영하여 세계로 알리고자 한국에서 밀반출 했던 필름들이 45분 길이의 다큐멘타리로 태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필름들이 23년 후에 한국방송 일요스페셜에서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제목을 달고 다시 태어나리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23주기 즈음에 <푸른 눈의 목격자>가 한국방송에서 방영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자우편이 넘쳐서 한동안 매일 저의 전자우편함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행히도 제가 한국에서 일본 도쿄의 스튜디오로 가져간 자료의 분량은 영상물 제작에 딱 맞을 정도였기에, 김대중씨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준비했던 <기로에서 선 한국>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상된 필름의 마지막 1센티미터까지도 사용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도쿄의 스튜디오에 머물렀던 제 동료 Juergen Bertram씨가 제작을 많이 돕고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일을 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부르크에 있는 TV 방송본부의 편집자로서 훗날 빼이징 싱가포르 특파원으로서 그는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3일안에 필름을 편집하고, 음성과 화면을 맞추고, 음향을 준비하고, 대본 작성을 위해 정보를 분류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요즘에도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론종사자들은 시간적 압박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제작을 시간내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그램 준비를 제 시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데 대한 전세계적인 항의의 표시로서 그 프로그램은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제목을 달고 1980년 9월 17일 방영되었습니다. 군사정권이 정치적 자유만을 원했던 한 인간에게 내렸던 온당치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선고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자유세계가 함께 떨쳐 일어섰기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 덕분에 외부 세계는 사형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고 전두환 군사독재체제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짧았던 최규하 정권 아래서 한국인 모두는 정치적 변화를 희망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갈림길에 섰었고 광주 시민들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봄의 계절 5월에 한국인들은 정치적인 변화를 꿈꿨고 그 꿈은 훗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인들이 변화를 요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그 많은 희생의 결과와 비교할 때 광주민주화운동은 적어도 한국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속에서 자리잡은 균형의 상징인 음과 양은 민주적인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자리를 되찾게 되었고, 한민족 통일에 대한 논의는 좀더 진전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함께 보다 나은 한국을 꿈꾸고 기원합니다.

이런 훌륭한 상을 저에게 수여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ationale for Selection of the 2nd Song Kun-ho Prize Recipient

The Song Kun-ho Prize Committee has chosen Jürgen Hinzpeter to receive the 2nd Song Kun-ho Prize for his work in reporting the truth. After filming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t risk of life in May 1980, he made great contributions in making what had happened known to the world.

Mr. Hinzpeter was born in Germany in 1937 and studied medicine at the university. After he entered into the German broadcasting network, ARD-NDR, he took charge of Asian region, including Cambodia, Vietnam, and other locations. While he was a special correspondent in Japan, he took an continuous interest in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of the 1970s and 1980s.

Once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occurred in May 1980, he entered Korea from Japan and went to Gwangju at the risk of life. In Gwangju, he filmed vivid scenes from those days. Thereafter, he informed the world of this tragic event. His film awoke the national conscience by testifying to the objective facts of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also contributed to advancement of democracy in Korea. His footage remains a precious record of modern history.

Mr. Hinzpeter tried to make known the truth that fought injustice, remaining at the scene of his work despite fear of death. For this reason, the Song Kun-ho Prize Committee is pleased to award him the 2nd Song Kun-ho Prize, citing how his professionalism was consistent with the will of the late Song Kun-ho.

We hope that this prize will encourage all journalists to strive to report the truth and achieve freedom of the press.

The Song Kun-ho Prize Committee

Chairman	Lee Sang-hee
Committee Member	Lee Moon-young
	Kim Tae-jin
	Seong Yu-bo
	Bang Jung-bae

About Jürgen Hinzpeter

Born on July 6, 1937. Studied after high school examination in Kiel at Christian Albrechts-**University** medicine and decided later to join ARD-NDR Norddeutscher Rundfunk & Television Studio in the British Crown Colony for German TV-Network in South and Far-East Asia, covering Cambodia and Vietnam where he got injured in Saigon City during the Tet-offensive, spring 1969. Since a new Studio was built up for only Far-East Asia in delegation to Japan, he visited ROK/South Korea several times, recording the events that occurred under the presidency of Park Chung-hee and his following dictators.

Since early times starting from the year 1968 under the dictatorship of president Park Chung-hee, he always kept an eye on the oppressed opposition and her leaders such as the later president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their friends. Among other things he also had been under house-arrest together with Kim Young-sam in his house.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1980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in his journalistic work - a historical moment and political changing point for Korea.

This might have been the reason, why he, as a foreign journalist, had his own bad experience in Seoul at Gwanghwamun Intersection, when he was beaten up and injured seriously by riotpolice in Nov. 28, 1986.

Speech of the 2nd Song Kun-ho Prize Recipient

Chief Director of the Cheongam Press Foundation, Mr. President of the Hankyoreh Newspaper Company, honorable members of the Prize Committee, who had chosen me for this award. Dear distinguished Guests and Friends.

I am terribly sorry that I haven't mentioned any more honorable persons of importance in my address. Time is not enough to name them all being here so numerously. Time always is the pain in the neck of a newsman who is reporting for a massmedia or speaking in front of you like me right now. News and other Mediapeople are always under the pressure of time, but today I don't feel this stress of time so much anymore since I am retired especially when I am feeling so much emotionally touched by this event.

May I extend my thanks for this wonderful moment to the the Cheongam Press Foundation in connection with the Hankyoreh Newspaper Company which organized and arranged this ceremony for me. Let me als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of you who suggested me as the one to be invited and to be chosen for this prize.

In memory of Mr. Song Kun-ho the late President of the Hankyoreh Newspaper Company, who passed away on Dec 21, 2001, it is a highlight in my working career today. I am so much overwhelmed by being awarded for my journalistic work. I also feel that this moment is a very great privilege for me getting this prize as the second person, being the first foreigner from Europe..

As far as I am personally concerned this invitation and the news that the Hankyoreh Newspaper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Cheongam Press Foundation had decided to confer this Prize for my efforts for professionalism as a journalist came to me unexpectedly and as a big surprise for me; but at the same time it produced a lot of happiness and joy in my heart and many memories-bad and good ones- came up into my mind especially when you have documented them on Film.

For me therefore it's the most wonderful thing to speak to you at the same place where the Book-Publishing Ceremony for our first Book <Gwangju in the Eyes of the World> took place in 1997. It is a personal recollection of seven foreign journalists (two from Germany including me) covering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f I am now looking backward to the year 1980 and the May 18th Uprising of the citizens of Gwangju, I must mention that from the very beginning of my coverage in that cruel days I had never thought that there one day will be a fortyfive minutes documentary or a historical Feature being made, since I only collected small stories which I had smuggled out for putting it on air in our News in Hamburg, so that what happened there got out into the world. That even twenty three years later a 'SUNDAY-SPECIAL' (1-hour documentary) with the title 'BLUE-EYED WITNESS' would be so excellently produced out of my film-material by Korea Broadcasting System I could not think of, at that time. This film which was aired by KBS on the 23rd Anniversary this year got such a good echo specially with the younger generation that I got so many E-mails that I had to empty my mailbox every day for quite a while. It shows very clearly that the new young generation is very much interested in in the history of Korea and the new democratic development!

Luckily, my material I had brought out to our studio in Tokyo was just enough, but I knew that I had even to use the last centimetre of the developped footage for our Special Documentary <Korea at the Crossroads> as a protest against the death penalty for your later President Kim Dae Joung. Honestly the making of the film was a very difficult and hard task. Without the big help and initiative of my colleague Mr. Juergen Bertram, who at that time was luckily present in our TV Studio in Tokyo, I could not have managed. As an editor in our TV Main station in Hamburg and later correspondent in Peking and Singapore for a long time, he gave me a big helping hand. Thinking of producing this film in less than three days, which means cutting, synchronizing, soundmaking and sorting out informations for textmaking gives me still headache nowadays, and the time-pressure, I mentioned above- mediapoeple are always under time-stress- came on top of it.

Anyway the film got ready on time! Under the title <Korea at the Crossroads> it was aired on Sep. 17th 1980 directly after the evening news at 8:15 pm as a worldwide protest against he sentenced death-penalty for Kim Dae Joung. Since the free world stood together as a protest against this incorrect and inadmissable sentence of a military regime for a man, who only wanted to have political freedom, the death penalty was not executed. The pressure of the outsideworld with the help of the pressmedia could succeed and take a big influence on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Chun Doo-hwan at that time.

After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and the following short interim government of President Choi Kyu-ha everybody hoped for a political change. At that time Korea was at the crossroads and the Gwangju Citizens were in the Eyes of the World! In the

days of May, the month of spring, when nature gets green again the Korean citizens hoped for a political change, a metaphor, which later became true and in comparison to the Peoples' Uprising in China in June 1989 and the big massacre of the Tiananmen,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t least laid the foundation stone for the Democracy in Korea.

Yin and Yang, the symbol of balance in the Korean national flag came back into position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s based on a democratic system and even the idea of reunification of the Korean Nation took many steps forward. Let's hope and pray for a better Korea by all means.

Thanks again for awarding me with this Outstanding Prize.

Thanks & Kam-sa-hap-ni-da